

1. 教會革新
2. 社會變革
3. 世界所望

朴成哲副首相 서울에

아니요

이
크
투
이

한민족이다 ▼ 남북

눈물에 흐린 活字에 끝 장벽이 너무나 두터

쓰
쓰
하
거

비스하이 할것이

화적이고 자주적인 해결

민족의
사태에
찬사를

스로도
지렁스
랑거
생크

걸쳐 수탈을 당하고 모

의 것을
가나왔다.
조목

사의
피와
온국민의
수

가 없는 대한독립의 만세!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온

관한 우리의 문화 창

의 손으로 버리고

같은 부모형제의 피를

원
히
성
취
되
는
살
이
면

이 강산을 적시

로
굳
게
강
하
게
씩
씩
하

도
는
바
달
의
거
도
하
돌

서
기
다
릴
뿐
아
니
라
우
리

○
○
○
ハ
入
○
○
○

하나가 되고 조국통일의

밤낮으로 중보(仲保)의 기
현할것을

크다란 감격과 희망을 던

화적이고 자주적인 해결

민족의
사태에
찬사를

스로도
지렁스
랑거
생크

걸쳐 수탈을 당하고 모

의 것을
가나왔다.
조목

사의
피와
온국민의
수

가 없는 대한독립의 만세!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온

관한 우리의 문화 창

의 손으로 버리고

같은 부모형제의 피를

원
히
성
취
되
는
살
이
면

이강산을 적시

로
굳
게
강
하
게
씩
씩
하

도
는
바
달
의
거
도
하
돌

서
기
다
릴
뿐
아
니
라
우
리

○
○
○
ハ
入
○
○
○

豊饒위에靈的 祝福을!

台灣長老教百周年記念会 参席

盛大한 歡迎 感謝

대만장로교백주년기념회
회초청을 받아 약
일주일의 짧은 일정이었
지만 식전에 참석하고
각지로 다니며 여러가지
로 생각하고 느낀점이
많았다. 식전에는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영국
대표들을 비롯하여 수천
명의 회중이 모인 가운데
대성대히 거행되었다.
반가운것은 정인수목사님
과 평영교회 성가대원들
회장에서 만나게되어 대
단히 기뻐하며 식전개막
에 치마 저고리로 아름
답게 단장한 정주자양이
등단하여 일곱줄대에 점
화했을때 감명을 받았다
이와같이 우리교회의 친
선대표들이 대단한 환영
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
도안에서 우리는 한형제
요 자매라는 실감을 깊
이 가지게 되었다. 대만
이라고 하면 모든면에

個人所得2百92弗

있어서 우리보다 뒤떨어
진 곳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보다
크게 앞장 서고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수 없
었다. 그들의 옷차림이나
사는 주택, 오트바이크
등 일반적으로 우리의
생활보다 높다고 생각했
다. 1970년도의 대만
국민 개인소득 평균이
2백92불이라고 한다. 이
것을 보아도 경제적으로
도 동양에서는 수준이
높고 푸듯푸듯한 자연과
풍부한 농업자원, 관광업
의 호경기, 그리고 월남
전쟁경기와 보세가공 수
출업의 성한 모습을 중
합하여 나는 우토대만이
란 결론을 내리게 되었
다.

肥沃한 나라 台灣

그러나 다른면으로 보
면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内部의 深刻한 対立

대만에서는 지금 정부
에 대한 비판을 할수가
없다. 총통정치여서 선거
도 없고 어떤 종류의
비판도 반국가행위로서
처단을 받는다. 그것은
반공의 대열을 문란케
하며 따라서 이적행위가
된다는 논리인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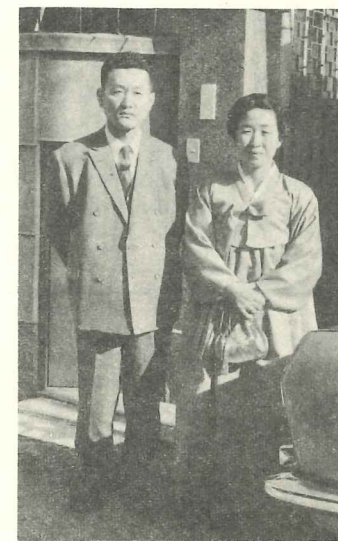
政治 無関心이 苦惱

대만교회는 일전 보수
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인상이 있지만 교인사
들 가운데는 오늘의 세
계교회의 모습과 장래에
대해서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인식과 식견과 생
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대만에는 우
리교포교회가 있다. 현재
타이베이(台北)와 기이
롱(基隆)과 가우쑹(高雄)
그외 한곳이다. 나는
기이롱(基隆) 한인교회에
서 주일예배를 보았다.
대만한인교회의 특색은
교포들 위해 존재하고

台灣人에까지 伝道

있을뿐 아니라 대만인을
위해서도 예배를 지키며
그들과 어깨를 겨누며
그 사회속에 들어가 동
화되어 함께 일하며 봉
사하는 모습을 보고 알
게 되었다.

金 得 三



吳在憲長老



金京秋長老

大阪教會의 두長老

지난 5월 21일 大阪
교회는 장로 두분의 장
림식을 가졌다. 김경추장
로(52才)와 오재현장로
(50才)이다.

留学生으로 많은 奉仕

美国留学위해 金浩植牧師歸国

약관의 대학강사로 모
교인 연세대학에서 4년
간 명칭으로 명성을 떨
친후 한국 서울에서도



金浩植牧師

그는 지난 7월 3일
同志社大学大学院에서
土課程을 마치고学位를
取得하고 미국에서 학업
을 계속하기 위해 일본
을 떠났다. 69년 10월,
일본에 와서 72년 7월
일본을 떠나까지 유학

지성의 교회로 널리 알
려진 경동교회(교인 약
1천5백명) 부목사로 부
임한 이래 국내외적으로
동분서주 활약하는 강원
용박사를 보좌하여 만 8
년간 꾸준히 목회에 사
무해온 김호식목사(38才)
는 봉사를 하였다.

생으로 大阪築港教會임시
목사로 재임대한 기독교
회총회 발전을 위해 많
은 봉사를 하였다.
그는 桑名教會(6개월
간), 大阪築港教會(2년
간)에서 教會奉仕를 하
면서 정조사경회(70년,
71년, 72년)를 경동교회
名古屋교회, 西成교회에서
집회 인도하였고 특별전도
집회(71년 2·5·9·
10월)를 三宮전도소, K
CC회관, 경동교회, 堺교
회 등에서 인도하였다.
수양회 장사로서 70년
5월(3박4일) 중부지방
부인회연합회수양회를 비
롯하여 70년 7월(2박
3일) 중부지방신도수양회,
71년 7월(2박3일) 관
서지방부인회연합회수양회
를 인도했다. 그리고 지
난 6월 16일부터는 大
阪北部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였으며 그의 각교
회를 방문설교한것은 중
부지방 5개교회와 관서
지방 11개교회이다.

오재현장로는 제주시
禾北里출신으로 43년 5
월 10일에 우동철목사로
부터 세례받고 신자가
된후 교회활동에 적극
참가하여 주일학교 청년
회 성가대원들 지도하는
한편 음양으로 도아왔다
미국산업을 경영하는 오장
로는 신용과 성실을 본
위로 일해 왔으며 이웃
사람들에게도 많은 존경
을 받는 크리스천이다.
1남5녀의 가정으로 장
녀 미혜양이 출가했음뿐
모두 학생이다. 장남 영
일군은 관서대학, 二녀
양혜안은 동지사대학원,
高二, 中三, 小六, 출중이
학생이다. 전족위원의 회
계, 大阪교회 부회계등의
요직을 맡아 교회살림을
도맡아 봉사하는 오장로
의 그늘에는 부인 장봉
춘집사의 내조의 공이
크다. 사친, 김경추장로(右
와 오재현장로부부(左)

教会教育

キリスト教教育の目標

先月「あなたの教会にも
良い教育ができる」と言う
主題を持って、意見を出し
ましたが、どうでしょうか?
信じますか?賛成ですか?
今月良い教会教育のために
一番必要な事について考
えてみましょう。それはは
っきりした目標です。あなた
の教会教育の目標は何でし
ょうか、一人の教師は「た
くさんの子供を集める事が

誰でもイエス様について、
いろいろの事実を知ってい
ても、もし経験的にイエス
様を知らなければ、その知
識がもたないと思いま
す。あなたは「それならば、
教会教育の目標は、いろい
ろの人をキリストに導く事
になるでしょう」と言うか
もしれません、しかしそれ
は、まだ十分ではないと、
思います。その人がキリス
トを「主」と「救主」と
して受け入れるように、導
かれてからどうなるでしょ
うか?そのまま自分の救い
を楽しんでよいものでし
うか?いいえ、自分の信仰
人ならまず、キリストを信

福岡市東区古屋黒崎一三六
H・グリーン・デビス

